

# 기독교교육에서의 성경의 위치와 영향력



## 경제적 합리주의

경제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다. 정치가들이 각종 정책이나 주의를 내세울 때 이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생각은 교육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심지어 기독교 교육화자들조차 이러한 주장을 수 용하고 있다. 가끔 한국의 부모들에게 교육의 목적이 무엇 이냐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업 갖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그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육이 아니다. 이러한 시각은 교육 이라는 넓은 스펙트럼을 경제라는 좁은 의미로 축소해 버 리는 결과를 낳는다. 성경은 교육이 직업훈련 이상의 의미 가 있다고 말한다. 학교는 경제적 합리주의의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을 경제의 권좌 앞에 희생 제물 로 바쳐서는 안 된다.

## 세속적인 인본주의

한국의 교육은 전통적인 유교 중심 교육으로부터 자녀의 인격에 중심을 두는 교육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녀중심의 교육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세속적 인본 주의 교육의 대표적 인물인 존 듀이는 어린이가 교육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 육자로서 할 일은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 이 진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교적 관점 이다. 한국의 교육은 인본주의적인 제난으로 말려가고 있 다. 아이가 세상의 중심은 아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이 세상의 중심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교육은 각각 나 름의 관점이 있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아는 세계를 해설하 려고 한다. 교육이 편견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면 교육 차도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변증적이고 부끄러 워할 일은 아니다.

만약 비신자들이 우리의 교육방법을 편견이 심하다고 비 난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교육이란 편향성을 가진 다. 너도 그렇다. 그러므로 내 편향성에 관해 이야기해주 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신

## 과학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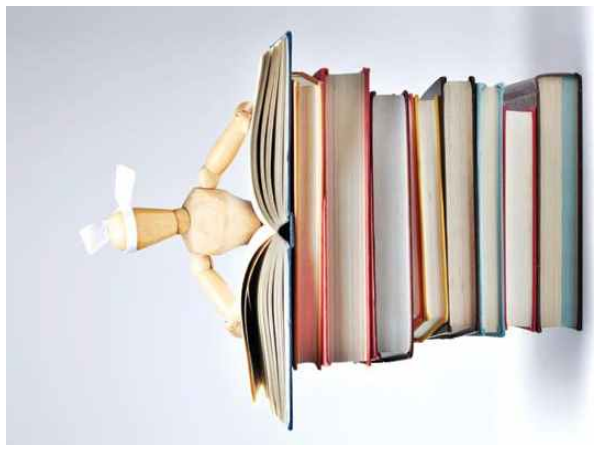
논리적인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 생각하며 감각이나 관 찰을 통해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식과 깨달음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학은 증명 적이지 않다. 비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 면 하나님은 과학, 학문으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과학 자 체가 이미 깊숙이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에서 인용한 앳슨은 당대에 널리 알려진 진화 론적 과학자였다. 앳슨은 화석의 증거를 통해 생물의 발 진단계를 논증했다. “진화를 믿는 것은 그 증거가 강력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의 창조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기 위하여 받 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의 불신앙은 자신의 학문 영 역의 모든 것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과학주의 가 우리의 지식과 교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 라이트 이틀린

학교에서 가르치진,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가르치진 하 나남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자들의 모임은 특별하다. 하늘에서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중 아.” 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그 리스도인은 교육이 정부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은 아 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이클 교원은 “성경의 스토 리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데 이르지만 거기서 그쳐 서는 안 되고 그 이상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우주의 세 로운 갱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선교적인 의미이 고 성경의 스토리의 중심을 그런 각도로 이해해야 한 다.”라고 말했다. 교육이란 항상 중립적이지 않다. 가 르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에 종교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상의 교육은 보편적으로 네 가지 관 점을 가지고 있다.

영과는 관련이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 등의 학문에는 관계 가 없다고 가르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이들이 무 엇을 믿게 될까? 하나님은 교회와는 관계가 있지만, 세상 과는 무관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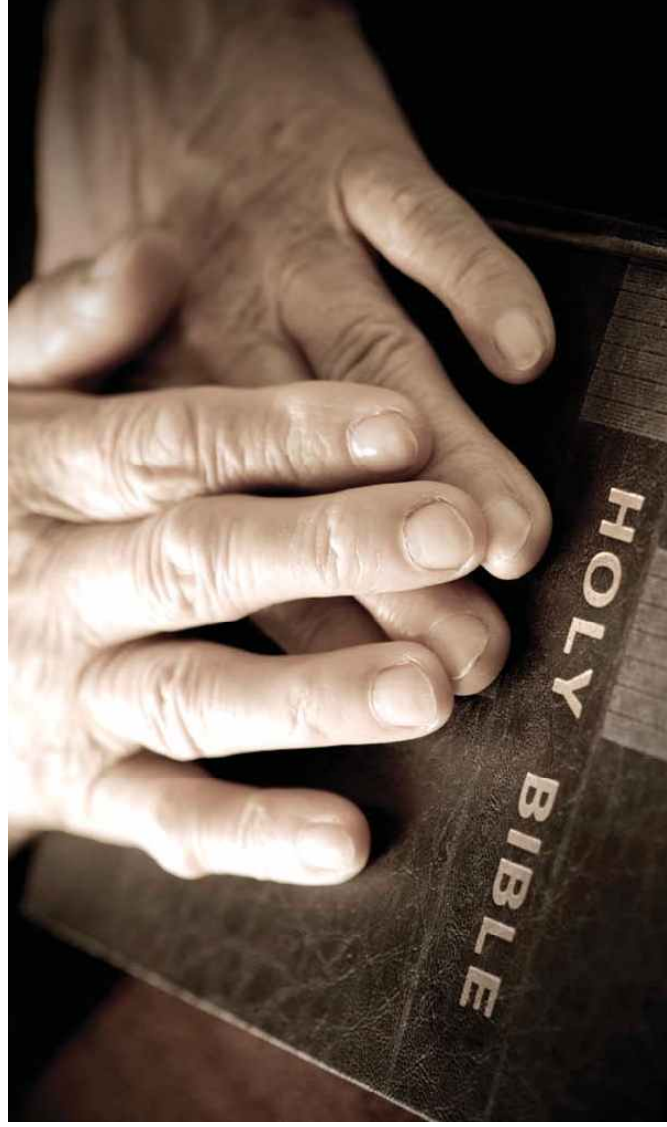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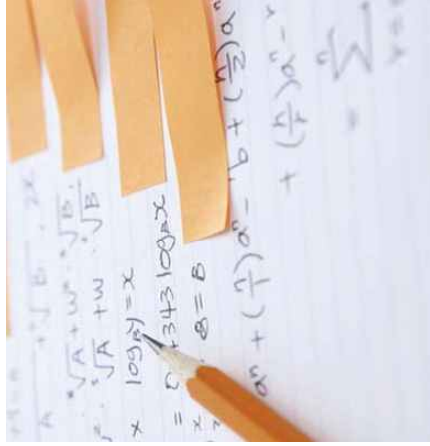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기독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배운다. 아이들은 잘 교육을 받아야 야 선생님들과 생각이 같아진다.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주 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선 생님을 만나야 한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을 공립학교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홈스쿨링과 기독교 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했 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독교 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세상도 기독교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원론에 영향을 받 고 있다. 이원론이란 경건 훈련이나 신교, 교회활동은 하 나님과 상관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신교, 교회활동은 하 별개의 문제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이방적인 사고이며 배 격해야 한다.



기독교를 종교라는 작은 영역 안에 가두면 세상이 제일 좋아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외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 학부도, 교사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교육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란다.

### 수학적 예시

기독교적으로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적으로 역사를 가르치고 직업과 은사를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아이들을 아주 명료하고 각별하게 기독교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세속적 관점에서 가르치게 된다. 만약 특별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홈스쿨링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다. 홈스쿨이긴 기독교 학교이긴 존립의 의미와 목적은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각인하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이 양육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만든 커리큘럼을 가져다가 쓴다고 기독교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의 필요와 은사에 따라 적절하게 가르침으로 아이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돕는 도구이지 책임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 성경은 기독교교육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는가?

교육학자 더글러스 윌슨은 "태양이 비지면 해를 바라보듯 참된 지식이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독교교육 학자가 할 일은 학생들이 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독교교육은 성경에서 적합한 성경 구절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의 빛 아래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은 훌륭한 기독교 교육환경 속에서 세 가지로 작동해야 한다.

#### 1. 경건의 기쁨

기독교학교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한 기독교대학의 졸업식에 참석해 보니 1부는 졸업예배, 2부는 학위수여식이었고,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이원론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 전

그런데 성경을 우리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꾸짖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성경 안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에서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를 우상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 3. 침투적인 기쁨

성경이 교육 속으로 스며들어 오는 기능을 말한다. 모든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특별한 관점에서 세상을 모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하는 일과 아는 모든 것들에 흠뻑 배여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떤 종교적 관점에서도 1+1=2이다. 그런 점에서 수학은 중립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수학 속에 모실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 계신다. 수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표현이다. 수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성과 권능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질문해야 했다. 어떤 종교나 이념도 1+1=2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그런지를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도 불멸고 계시고 타락했을 때도 회복시키셨기 때문이다.

태양을 바라보기보다 태양의 빛으로 세상을 보듯 성경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교과목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다. 집에서 학교에서나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용기있는 발견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졸업식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짜여야 한다. 창조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졸업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이 개발돼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2. 근본적인 기쁨

기독교의 진리 그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자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경 자체를 배우기도 하고 복음전파, 성화 등을 공부할 수 있다. 성경 행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이 정확무오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리처드 에블린 고신대학교의 객원교수, 동주의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에서 학장으로 10년 간 기독교 교육 박사 후 과정을 가르쳤다. 2009년 1월부터는 전세계의 기독교 교육과 공동체를 연구하는 에드저브 인터내셔널(www.edservinternational.org)에서 이사로 있는 한편 한국, 인도 등의 대학에서 교원 교수로 섬기고 있다.